

소설 원효 1, 2, 3
한승원 지음
도서출판 비채
2만8000원

원효 스님 장편소설 논쟁 불다

한승원

<원효 1, 2, 3>

VS

이광수

<원효대사 1, 2>

중생들에게 지극한 사랑으로 불법을 전하며 온몸으로 어두운 세상의 새벽이 되었던 원효 스님. 그의 삶과 사상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빚어낸 한승원의 장편소설 <소설 원효 1, 2, 3>가 출간됐다.

원효를 올바르게 읽으려서 잘못 알려진 관념을 바꾸기 위해 한승원 선생이 3년동안 그동안 발간된 저서, 논문, 삼국의 역사, 불교경전등 수많은 책과 자료를 탐독했다. 또 원효의 행적을 좇아 그가 태어난 경산 불등 마을을 비롯해 경주 남산과 서라벌, 영축산과 반고사리로 추정되는 곳을 수차례 방문했다.

그대선지 그동안 신화속에 박제되어 있던 원효의 삶은 이 소설속에서 생생한 숨결이 느껴진다. 마치 원효가 아무 걸림없는 무애춤을 추듯 거침없이 활달하며 유려하고 자유자재하는 듯하다.

“삼국통일전쟁 반대한

반전주의자 세계주의자”

한승원의 소설에서 원효 스님은 신라의 삼국통일전쟁을 반대한 반전주의자이자 한 나라의 영토와 경계를 뛰어넘는 세계주의자, 일심과 화평과 무애를 실천한 불국토주의자로 태어나고 있다.

특히 한씨는 신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향하던 삼국전쟁의 광기어린 분위기에 원효는 중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외쳤다고 기술한다. 신라 집권자들이 일으킨 전쟁에 그는 제재 대상이었다는 것. 그래서 원효를 파렴치한 승려로 만들고 전쟁을 지르는 동안 요석궁에 감금시킨 것이라고 서술한다. 소설에서는 말미에 원효와의 가상 인터뷰도 시도한다. 살아있는 듯 육성을 직접 듣는 형식을 통해 원효 스님의 요체를 정리한 글로 소설의 압축본 구실을 한다. 또 용어풀이를 수록해 당시 정치문화, 불교관련 용어를 알기쉽게 풀이했다.

한편 한승원씨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불의 딸> 등 신화적인 작품들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문학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 현대문학계의 대표적 작가이다.

소설가 한승원의 장편소설 <원효1,2,3>인가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원효대사1,2>인가. 같은 시기에 출간된 한승원과 춘원 이광수가 소설로 그려낸 원효 스님의 삶이 출판가의 화제가 되고 있다.

출간도 되기전 소설가 한승원과 춘원 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의 재출간을 준비중이던 화남 출판사의 이승철 편집주간은 왕복 5회에 걸쳐 이메일 논쟁을 벌였다.

논쟁은 친일문학 논쟁과 출판의 자유문제까지 거론됐다.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 이같은 논쟁은 한승원씨가 먼저 시작했다.

한씨는 춘원 이광수의 친일행적을 거론한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작가활동을 했던 이광수는 <원효대사>를 한반도 식민통치 지휘소인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연재했다. 조선총독부는 이광수의 소설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라고 충동질하려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한씨는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보면 원효가 도술로 도적을 제압하고, 신라 젊은이들에게 삼국통일 전쟁에 기꺼이 몸을 던지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한다.

한씨는 “불안정한 시국에 여자 생각이 동하여 과부 요석 공주와 동침하고 도술을 부려 삼국통일에 협조한 인물로 원효를 기록한 것은 오독”이라고 말한다.

이에대해 화남출판사 이승철 주간은 “문학작품이란 친일 작가가 쓴 작품이기에 독자가 친일작가의 작품에서 맞본 감동이란 의미없다. 한다면 이는 이를 읽는 독자에 대한 오독”이라며 “친일행위는 비판받되 작품은 작품으로서 읽히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씨는 “원효를 한민족으로 보고, 한민족 자체를 인격화한 이 작품은 일제 말살정책에 맞서 우리 말과 글로 쓴 춘원의 대표적 역사소설”이라는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평가도 있는 만큼 오히려 두 소설을 비교하면서 달라진 스펙트럼을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승원 선생이 지난 3년간 공들여 쓴 작품이라면 독자들이 그 작품을 외면할리 없는 만큼 독자들에게 말기자”고 주장했다.

김원우 기자



원효대사 1, 2
춘원 이광수 지음
도서출판 화남
1만8000원

장엄하고 넉넉한 신라의 풍경과 대자유한 민족의 부처, 원효의 일생을 소설화한 춘원 이광수의 대표적 장편소설 <원효대사 1, 2>가 재출간됐다.

이 책 <원효대사>는 1942년 춘원 이광수의 나이 51세에 창작한 장편소설로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7개월 동안 연재됐었다.

이 작품이 발표했던 시기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직후이고 일본 제국주의가 내선일체를 미끼로 황국신민화정책을 책동하던 시기였다.

당시 일제가 춘원에게 <원효대사>의 집필을 허락한 속셈은 원효가 승병을 일으켜 나라에 충성한 것처럼 전 시체제를 한인들에게 알려 이른바 ‘국가총동원’의 선전성을 노린 것이었다.

이에대해 춘원 이광수는 이를 역이용하여 한민족의

“원효를 한민족으로 보고

한민족을 인격화한 작품”

민족정기를 불러일으키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았고 자신의 심정을 소설속에서 고백한다.

춘원의 <원효대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말과 글로 써 이들을 밝힌점과 더불어 원효를 조선 자체로 보고 미래형으로 그리면서 한민족 자체를 인격화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엔 발간된 <원효대사>는 소설 곳곳에 나타나 있는 불교용어와 여러 불경의 인용으로 인해 일반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주해를 달았다.

또 조선대 김준태 교수와 이병주 동국대 명예교수의 작품해설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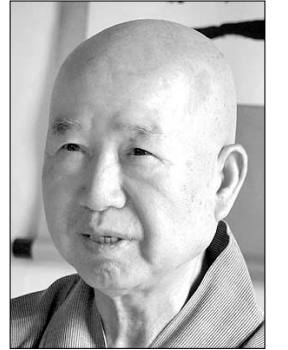
한편 춘원 이광수는 1892년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 1917년 한국 근대 장편소설 <무정>을 발표했다. 19년 도쿄에서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고,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신문 편집국장과 사장을 지냈다. 37년 도산 안창호 선생과 투옥되기도 했지만, 39년 조선문인협회장 재임시 황국신민화정책에 부응하는 친일행적을 남김으로써 한국 근현대문학사 영역의 상징이 되었다.

interview

<간화선의 길> 펴낸 정관 스님

‘의심’ 붙어야 간화선의 길 열린다

보물을 찾아 나선 사람이 헤매지 않고 보물을 찾으려면 보물 있는 곳을 알려주는 지도가 필요하다. 정관 스님(부산 영주암 회주·사진)이 50여년의 수행 인생 동안의 체험을 토대로 간화선 수행의 지도를 그려 후학들에게 건네고 있다. 먼저 수행의 길을 걸어간 노장의 자비심이다.



“입버릇처럼 간화선을 말하지만 간화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일평생을 선방에서 보내도 공부의 보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간화선 수행에 대해 이리저리러공 토를 다는 것을 보면서 내 체험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가닿는 간화선의 길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정관 스님이 <간화선의 길>을 펴낸 이유다. 1954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관 스님의 수행 인생이 요약돼 담긴 <간화선의 길>은 간단명료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계승 같은 문장으로 간화선의 길, 선의 활맥, 화두참구와 염불주리의 차이, 화두선과 송화두, 자성예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관 스님이 펼쳐 보이는 간화선의 길은 ‘의심’에서 활짝 열린다. “간화선은 첫째 의정이 있어야 합니다. 의심이 없는 화두는 입에 자갈을 문 듯 갑갑하며 평생을 선방에 있더라도 허무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의심 없는 화두를 하느니 차라리 송화두가 낫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스님이 말하는 송화두는 염불, 염주줄이 끊어질 만큼 ‘죽도록’ 관세음보살을 반복 또 반복하다 ‘관세음보살하는 이놈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의문이 촉발돼 화두 수행자가 된 스님의 경력이 녹아 있는 송고다.

“나무와 나무를 씹 없이 부지런히 문지르면 불이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송화두의 공덕이 쌓이면 의심의 토대가 되죠.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산 증인이나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정관 스님은 의단독도가 되면 ‘화두의 법열’이 물위에 박을 띄워놓은 듯 가볍고 평화로우며 자연스럽다고 귀띔한다. “화두의 법열은 상대로부터 뺏거나 쟁탈하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 나를 제도한 결과이므로 영원합니다.”

천미희 기자



간화선의 길

정관 스님 지음 | 불교시대사 | 8500원

본지 577호 8면 <꿈 마래의 열쇠> 기사중 성각 스님은 현오 스님의 오기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왕초보 불교 박사되다 / 민족사, 석지현외, 7500원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 정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티벳사자의 서 / 정신세계사, 파드마삼바, 2만원
 - 인연법과 마음공부 / 효림, 혜국 스님, 4000원
 - 화두참선 / 우리출판사, 이계목, 1만3000원
- 도서주문 (02)2004-8220

일허스님의 장애인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위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년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인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 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윤필이 거침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 관: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 원: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 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소: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화 : 055)356-2040, 011-867-4747